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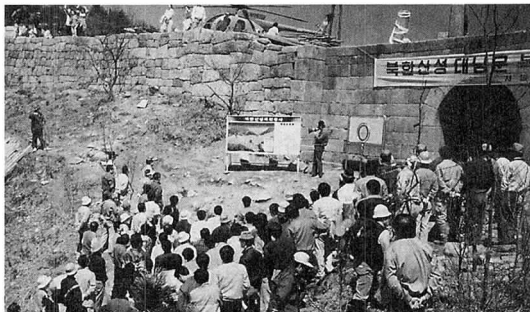
# 北漢山城 門樓復元

서울市 4.20. 起工式 約10億원 投入

서울특별시는 4월20일 상오11시30분 北漢山문수사 동편 大南門 옛터에서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주제로 「大南門復元기공식」을 거행했다.

서울市는 ▲81년~92년까지 大南門및 주변성곽 보수와 大成門및 주변성곽을 보수하며 ▲93년까지는 大東門및 주변성곽보수 ▲94년부터는 東將台. 등산로 정비및 성곽보수를 할 계획인데 총사업비는 약 9억5천2백만원이 투입된다.

이 山城은 옛날 고구려·백제·신라가 공방전을 벌인 곳이며 고려 高宗19년(1232)에는 몽고군과 격전장이 됐었고 조선시대에는 壬辰왜란·丙子胡亂등 外侵으로 숙종37년(1711)에 石城으로 再築城했다. 市는 문루를 복원정비하여 文化財로서 길이 保存케 하고 市民과 후손들에게 教育의 場과 休息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큰 의의를 갖고있다.



▲서울市 종합건설본부장 주제의 大南門및 성곽정비 기공식 광경

## 今年度 本賞은 효자 權相雨씨 4.25 제34회 補化賞 施賞式

도의양양과 미풍양속의 진작을 위해 補化賞을 주면서 사회교화에 힘써온 재단법인 補化院(大邱市 南區 大明3동 2274-5 창립이사장 趙鏞孝·회장 徐鏡普)주최 제34회 補化賞 시상식이 4월25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시 달서구 月城洞 동원 시상장소에서 거행됐다.

1956년에 창립한 동재단은 매년 30여명의 孝行·

烈行·善行 남녀를 경북일원과 대구직할시일원에서 각시군의 추천으로 선발하여 34년동안 1천여명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금년도 최고상인 補化賞 수상자는 효자 權相雨씨(53·대구 중구 동산동 452)이며 孝行賞 28명 烈行賞 4명, 善行賞 5명 도합 38명이 각각 영예의 상장과 부상을 받았었다.

## 장애인雇傭 촉진大會 개최

장애인들의 고용증대와 직업재활을 도모한 장애인 고용촉진大會가 지난 4.25 오후 한국종합전시관에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사장 高貴男)에 의해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5백여명의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참석했으며 崔秉烈 노동부장관, 高貴男 이사장은 장애고용사업주 李相汶씨(남광통상)와 장애인일꾼 강영복씨(국민연금관리공단)〈사진左부터〉를 격려하고 있다.



## 비내리는 顧母嶺노래비

大邱 壽城구청 10月 祝祭때 除幕

대중가요 「비내리는 顧母嶺」의 노래碑가 大邱에 세워진다.

大邱市 壽城구청은 40여년간 인기를 누려온 대중가요 「비내리는 고모령」이 국내 孤山2동의 고모령(일명 八峴재)을 배경으로 지어졌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래비를 제막, 오는 10월 구민축제때 고모령에서 제막식을 갖기로 했다.

고모령은 예부터 慶山·永川방면과 大邱를 잇는 지름길로 이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京釜線철길에 깔리고 孤山국도 아스팔트대로에 밀려 자취만 남아 있다.



### 국민부터 社會正義실천자 로 신뢰받아야

史上처음 무투표 당선된  
서울地方辯協 黃桂龍 會長

서울辯協상사 처음으로 지난 1월26일 협회장에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黃桂龍변호사(本會會員)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므로 무엇보다 이같은 使命을 염두에 두고 時代변화에 맞는 現代인 변호사회의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사상 처음으로 무투표로 협회장에 당선된 것은 「책임감을 갖고 협회 발전과 회원권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회원들의 뜻으로 알고 임기 2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 曉星女大 金宗福교수 受賞 第2回 崔榮林미술상

여류서양화가인 金宗福씨(효성여대 교수)가 지난 3월11일 제2회 崔榮林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되어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 자리서 金씨는 상금 5백만원과 유럽일주 여행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金씨는 오랫동안 「파리」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며 유명화랑에서 활약했었다.

### 內務部 柳鳳永과장 法博學位 「地方自治의 地位·機能領域研究」로

지난 3월26일, 30년만에 처음 再開된 기초의원선거를 약1개월 앞둔 2월25일 內務部 柳鳳永 世제과장은 全州大에서 「韓國地方自治의 地位와 機能領域에 關한 研究」-中央地方間的 垂直分權을 中心으로- 主題의 學位論文으로 法學博士學位를 받았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기초지방의회 선거로 기초의회 의원지방자들이나 관계당국자들에게 이 논문이 귀중한 자료이며 참고서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柳과장은 동대학대학원 법학과의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철저한 학과파.

그는 지난 88년 5월19일~21일까지 북한산 국립공원지역의 그린파크에서 개최된 본회주최 제9회 자연공원학술 세미나에서 당시 내무부 자연보호담당관으로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여 주목을 끌었다.



### 한국플라워디자인協 定總 제5代 理事長에 金容愛씨 選出

金容愛씨(57·플라워 디자이너·梨大卒)는 오랫동안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이사·수석부이사장으로 활동해 왔었는데 지난 3월25일의 동협회 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 극단적인 財團불신속에선 投資어려워



### 12年만에 成大와 결별선언한 李東寧翁 (鳳鳴그룹 명예회장)

成均館大學校의 학내사태 등과 관련, 지난 4월26일 12년동안 경제적 고충을 초월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던 瑞峰 李東寧 鳳鳴그룹 명예회장(86·成均館大 財團理事長)이 成大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선언하자 학계·재계는 물론 동문들과 일반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들의 재단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풍조속에서 더 이상 학교발전을 위해 투자하기 어렵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동안 水原캠퍼스 시설확충과 米倫洞캠퍼스 도서관건설 등에 노력(1백30억원 투자등)했으나 벽에 부닥쳤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데 지난 4월12일 셋째 자제인 李昇茂씨(동대학재단 상무이사)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갈등끝에 운영포기발언까지 한것이 계기가 되긴 했으나 不信의 짙은 오랫동안 쌓여 있었고 교수와 학생이 단합되지 않는 상황도 한 원인이라 한다. 고향인 경북 聞慶에서 사업가로 성공,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육영사업(女高·男高)엔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온 양심적인 인물로서 각계의 존경을 받아왔다. (香)